(검은 화면에서 Fade in 하며 컷 씬이 시작된다.)

0. 이 게임에 언급되거나 묘사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그 밖에 일체의 명칭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인공이 병사들과 함께 왕궁 앞에서 궁 안쪽으로 걸어가며 독백으로   
ex) "상황이 어떻 길레 이런 나까지 궁으로 들이는가" 말하고 들어간다.

2. 병사들의 인솔을 받아 세자의 방 앞에 다다른 주인공은 방안에서 왕을 만난다.  
둘은 세자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왕의 부탁을 받는다.

3. 세자의 상태를 본 주인공은 이를 신병임을 알아차린다.   
주인공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법을 생각해본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주인공은 누름 굿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세자에게 누름 굿을 시도하는 주인공은 세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5. (갑자기 어둠의 기운이 세자에게 들어오며 주변으로 악의 파동이 뻗어 나간다.

파동이 맵을 지나가며 지나간 자리는 어두워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바뀐다. )

6. 악의 기운으로 인하여 주인공은 자신이 누름 굿을 성공했다고 착각한다.

왕에게 포상을 약속 받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7. 집으로 돌아가던 주인공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목격하게 된다.

혹시나 자신의 집에 불이 났나 생각한 주인공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긴다.

8. 집에 다 달은 주인공은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찰나에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싫었던 왕이 보낸 자객이 주인공에 가슴에 칼을 박아 죽인다.

(주인공은 몸 중앙에 칼이 박히며 처절하게 앞으로 쓰러진다.)

(주인공이 쓰러지며 하늘에서는 서서히 비가 내리며 점점 시야가 어두워진다.)

9. 주인공인 죽은 걸 확인 한 자객은 적당히 외진 산에 주인공을 적당히 던져 두고 유유히 사라진다.

(시간이 지난 뒤)

10. 땅에서 손 하나가 올라오며 주인공이 땅을 파해 치며 올라온다.